

선체조사위 출범... “세월호 천공·절단 합부로 못한다”

김철승 목포해대 교수 등 8명 선임...원인 규명 본격 착수 오늘 미수습자 가족 면담하고 인양 과정도 브리핑 받기로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는 일련의 훼손 행위가 합리성을 결여할 경우 선체조사 방해 행위로 간주돼 법에 따른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측이 밝혔다.

28일 국회 선출 등을 통해 8명의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들어간 선체조사위원회 측은 첫 공식 행보로 팽목항으로 내려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 선박에 올라 인양 과정을 브리핑받는 것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된 첫 권한 행사에 들어간다.

한 선체조사위원은 2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내일 팽목항에서 미수습자 가족

들과 만나 선체 조사, 인양 과정, 미수습자 수습 등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선체조사위원들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바람을 위원들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선체조사위원은 “미수습자 가족 면담 후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 선박에 올라 인양 과정 전반을 보고받기로 예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활동 내지 행보는 위원들간 조율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체조사위원회 측은 세월호 목포항 거치까지의 과정, 미수습자 수색 작업 등에서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선체 인양 과정은 물론 목포신항 거치 후까지 해양수산부 등이 임의로 선체에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는 행위에 합리성이 결여될 경우 선체조사 위원회의 ‘선체조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일부 선체조사위원들의 설명이다. 필요할 경우 세월호 인양 및 목포신항 거치 후 미수습자 수색 시점 등 일정에도 적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체조사위원회 측은 “합리적이지만 선체 훼손 행위 등은 선체조사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권·고발 및 수사요청권·감사요구권을 갖고 이전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선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가 이날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함에 따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한 위원 3명 등 총 8명의 위원 선임이 완료됐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김창준

변호사·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이동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장법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상 국회선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민 변호사·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근 씨(이상 가족대표 선출)다.

이들 위원 8명은 이른 시일 내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선출하고, 조사 위설립준비단 발족, 사무실 위치 선정, 시행령 준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정원 50명 이내에서 공무원·직원들의 수와 사무실 위치, 규모 등을 정하며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선체조사위는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일을 결정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간 활동한다.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

사위의 가장 큰 임무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선체조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포함)에 관한 의견표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한다.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위원들 신원조회,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장 수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 가 법에 따른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데엔 1개월 안팎이 소요될 듯 하지만, 정부 협조 아래 권한행사를 조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찾으소서 영면하소서”

진도·목포서 추모행사

세월호의 안전 이송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도 팽목항과 목포수도에서 잇따라 열렸다.

진도군은 28일 오전 11시 팽목항 방파제 기다림의 등대 앞에서 ‘찾으소서 영면하소서’라는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살풀이와 김타춤 등 추모 공연을 진행했다. 팽목항을 찾은 진도 군민과 현장 추모객 300여명은 함께 추모행사에 참여해 세월호 참사 1078일 나타내는 노란봉선 1078개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세월호가 침몰한 목포수도 인근 사고현장에서는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미수습자 가족 6명과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인 10여명은 어업 지도선인 무궁화5호 선상에서 4대 종교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세월호의 무사 이송과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했다.

세월호가 거처될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추모 분위기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지역 40여개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 실천회’는 이날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추모관을 설치하고 유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유해 유실 가능성

세월호 밖에서 유해 6개 발견...유족들 “참담”

철저한 유실방지 작업 촉구

세월호에서 흘러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세월호가 실려 있는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 설치한 유실방지막에서다. 세월호 안이 아닌 밖에서 유해가 발견되면서 유실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 6개가 발견됐다”며 “개구부 및 창문을 통해 배출된 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실려있는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로 펠과 함께 흘러나온 것이다. 2중으로 설치된 유실방지시설 중 나중에 설치한 유실방지막에서 발견된 것이다. 유실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로 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현재 세월호의 창문·출입구·구멍 등 263곳 가운데 101곳에는 유실방지막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유실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0~30cm의 구멍이라 유실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선미 램프 부분은 화물이 막고 있어 유실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선 세월호의 유실방지막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미수습자 유해의 유실 가능성이 커졌다.

그토록 유실 방지를 원했던 유가족들은

세월호 밖에서 유해가 발견되자 충격 속에 오열했다.

4·16연대는 이날 긴급논평을 내 “이렇게 되면 세월호가 해저면에서 올라오던 순간부터 반잠수 선박에 거치 되기까지 (미수습자 유해 등)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개구부 263개 모두에 대해 지속해 유실방지 조치를 보강하고 선체 좌현의 유실방지막이 훼손됐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해수부가 지금이라도 모든 개구부에 대한 유실방지·보강 작업과, 선수들이 당시 찢어진 부분과 절단한 좌현 선미 램프에 대한 유실방지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반잠수 선박 위에 유출된 펠과 유류품 일체를 정밀조사해 존재 가능한 모든 유해를 철저히 수습하고, 이들을 보존·보관해 사후 선체조사위원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유해가 세월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견되면서 우려한 대로 미수습 유해 유실의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시신 유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그물막을 준비하고 해역도 살살이 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 역시 유실방지와 미수습자 발견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유해 담을 박스 들고... 28일 국과수 관계자들이 진도군 서방향에서 유해를 수습할 박스를 들고 경비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세월호를 선적한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호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해수부 “내일 목포신항 이동 계획 변동없다”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지만 세월호가 오는 30일께 목포신항을 향해 출발하는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목포신항 입항을 위한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됐지만 이날 30일께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는 계획에는 현재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부양을 위해 반잠수식선박 선미에 추가로 설치했던 날개탑(부력탱크) 4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30일께 출항해 31일 오전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세월호 내부의 기름혼합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함께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서 분리해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진다. 4월 5~6일께 세월호가 육상에 완전히 거치되면 10일부터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선체 훼손 논란을 부른 ‘세월호 왼쪽 면에 배수구를 뚫는 천공작업’을

해상에서 하지 않고 목포신항 접안시 또는 육상거치 후에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25일 세월호 원전 부양 이후 창문과 출입문 등을 통해 해수와 기름 혼합물이 자연적으로 빠지도록 기다린 데 이어 27일 오후 세월호 원전에 32개의 배수구를 뚫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27일 밤 D데크의 천공지점 중 4곳에 지름 1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는 시험 천공을 진행한 결과, 1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3곳에서는 물이 아닌 기름만 소량 흘러나오자 천공작업을 양기로 결정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살인 허위신고...경찰 50명 출동

○~112신고센터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50명을 출동하게 한 50대가 경찰서행.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황모(51)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38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자신의 원룸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열반게 해서 동료를 때려 죽였다. 피를 많이 흘렸다”며 허위신고해 출동한 경찰에게 “공원에 있으니 찾아봐라”, “도서관에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경찰은 “조사결과 황씨는 벌금 수배자로 지난 26일 검거돼 미납 벌금 590만 원을 1200만 원짜리 수표로 납부했고 잔액을 다음날 돌려받기로 하고 귀가했다는데, 황씨는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112신고센터로 21차례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갈테니 순찰차를 보내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했다”고 설명.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h3>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h3> <p>전원주택 강력추천</p> <p>■ 광주에서 40분</p> <p>■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p> <p>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p> <p>◆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p>	<h3>동구 수기동 상가매매</h3> <p>20층 중 6층 ◆ 평수 45평</p> <p>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p> <p>주 차 완비</p> <p>■ 보 1천만-월 70만</p> <p>▶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용5천)</p>	<h3>상무지구 상가매매</h3> <p>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p> <p>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p> <p>보 500만 월 44만</p> <p>◆ 매가 8천 300만</p> <p>■ 목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p> <p>■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월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p> <p>■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관망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h3> <p>■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p> <p>금보로 4억, 5억씩 2분 ▶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p> <p>■ 광양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층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p> <p>■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p> <p>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p> <p>■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총 층 33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운전역 1분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p> <p>■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 토 4평, 건 47평 수완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p>
--	---	--	---